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POND

가제 : 연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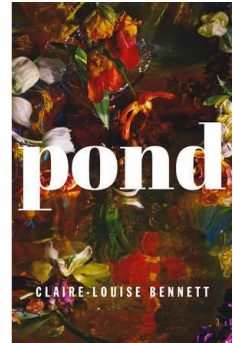
저자 : Claire-Louise Bennett

출판사: Fitzcarraldo Editions

발행일: 2015년 10월 7일

분량 : 148 페이지

장르 : 심리



실로 놀라운 데뷔작이다. 아름답게 쓰여졌으며 대단히 위트있다.—'The Guardian'

우아하게 독창적이다.—'Financial Times'

해안가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한 여성, 평범한 일상과 주변 환경이 건드리는 기억과 감정들

한 젊은 여성이 아일랜드의 작은 해안가 마을에 홀로 머물고 있다. 그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홀로 보내는 소소한 일상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된 이 소설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그 일상 생활에 주목한다. 소설의 화자인 여자는 아침식사로 먹는 죽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바나나를 커피와 먹으면 얼마나 잘 어울리며 이 때 바나나는 어느 정도로 익어야 적절한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열심히 이야기하는가 하면 길에서 마주친 소들이 보인 공격적인 몸짓, 주인집 여자가 개최한 파티, 숙취로 늦잠을 잔 날 불쑥 찾아온 쥐 잡는 아저씨와 어색하게 마주 앉아 마신 커피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140 페이지에 불과한 짧은 책 속에는 여자의 이런 소소한 이야기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과거의 사건들, 생각들이 때로는 겨우 반 페이지, 때로는 수십 페이지에 걸쳐 서로 관련 없는 단편들처럼 제시된다.

창가에 과일이나 야채가 담긴 바구니를 올려놓을 만큼 폭이 넉넉한 선반이 달려 있으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설명하는 여자는 우아하고 매력적인 가지와 어떤 과일과 놓아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배의 묘한 특성을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달이 뜨는 모습을 보면 전율을 느끼지만 해가 뜨는 장면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도 이야기한다. 그녀가 집 안팎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 자연의 변화를 보며 떠올리는 생각들에 귀를 기울여보면 어딘가 불안함도 느껴지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묘한 친밀감이 느껴진다. '우리는 얼마만큼을 받아들이고, 또 얼마

만큼을 떠나 보내야 할까?’라는 질문이 깔려 있는 여자의 이야기들에는 사소한 것에도 몰입하는 뜨거운 열기와 솔직 담백함이 모두 담겨 있다. 좋아하는 미각을 충동원하여 치즈를 음미하면서 다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위안을 얻고, 전기 오븐의 온도조절 스위치를 아주 상세히 들여다 보고, 오후 느지막한 시각에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남자를 지나치는 이야기들은 언뜻 아무 의미 없는 일들처럼 느껴지지만, 그녀가 순간순간 느끼는 갈망과 좌절, 실망감이 그대로 녹아 있다. 별 것 아닌 오븐 스위치가 야기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아까운 시간이 낭비될 지도 모른다는 염려, 산책에서 느끼는 무언가에 대한 욕구와 스스로의 여성성, 어떤 장소와 그 장소에 얹힌 역사가 개개인에게 줄 수 있는 커다란 영향, 이와 같은 내면의 고민과 생각을 여자가 묘사하는 이야기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름 모를 주인공의 소소한 일상생활에 거울처럼 반영된 우리의 좌절된 욕망과 한계

왜 주인공의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을까? 독자가 아는 사람, 이전에 접한 책이나 영화 등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이 책에서 새로 만난 주인공에게 이미 알고 있는 동명이인의 특징을 이입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주인공과의 투명한 만남에 방해가 될 수 밖에 없다. 선입견이나 어울리지 않는 예측을 일절 배제하기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작가의 전략 덕분에, 독자는 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생각에만 의지하여 그녀를 해석할 수 있다.

짧거나 길게 이어지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느끼면서 마음속에 간직한 물리적인 세계를 일깨우는 공감각적 요소가 가득하고, 이는 불장난과도 같았던 지난날의 사랑과 새로 나타난 연인에 대한 양면적인 감정을 털어놓으며 여자가 내비치는 복합적인 감정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괴짜처럼 느껴질 정도로 독특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유머 감각으로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주인공에게서 우리 각자의 좌절된 욕망과 스스로 느끼는 한계들을 거울에 비쳐보듯 발견할 수 있다.

<저자 소개>

클레어 루이스 베넷(Claire-Louise Bennett)은 런던 로햄튼 대학교에서 문학과 연극을 공부했다. 「The Stinging Fly」, 「The Penny Dreadful」, 「The Moth」, 「Colony」 등의 간행물에 단편과 에세이가 여러 차례 게재되었으며, 2013년에는 ‘화이트 리뷰 단편 소설상(White Review Short Story Prize)’을 수상했다.

제목 : THE DAUGHTERS

가제 : 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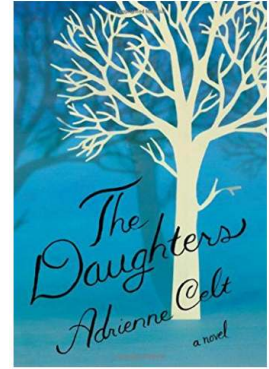
저자 : Adrienne Celt

출판사: Liveright

발행일: 2015년 8월 3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여성



내가 경탄하는 점은 켈트의 소설이 모성의 극적인 변화를 서술할 때, 부모로서의 선택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게 하거나 어머니의 창조적이거나 성적인 필요에 대해 사죄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이다.—리디아 키즐링, ‘The Guardian’

‘2015 미 남서부 PEN 어워드’ 수상작, 4대째 딸을 낳은 여자들에게 대물림 되는 비극적인 운명

세계 최정상 소프라노로 인정 받는 루루는, 소중한 딸 카라를 낳은 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루루가 아홉 살 때 사라져버린 엄마 대신 자신을 애지중지 키워준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출산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루루는 카라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루루의 증조할머니 그레타로부터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저주 때문이었다. 딸을 낳으면 그 딸이 엄마의 타고난 재능을 빼앗아간다는 무시무시한 저주는, 난산으로 인해 몸이 회복될 때까지 노래를 일절 부를 수 없게 된 루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루루는 최고의 소프라노 자리에 오르기까지 갈고 닦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이 아이 때문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레타는 폴란드의 한적한 시골에 살면서 딸 다섯과 아들 셋을 낳았다. 아들들은 모두 건강했지만 딸은 연이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벌어졌고, 마지막에 낳은 딸이자 루루의 외할머니인 에이다만이 겨우 살아남았다. 집안 여자들에게 대물림 된 저주가 시작된 것도 바로 이 때부터였다. 철 모르는 시절의 사랑, 너무나 절박했던 그레타의 바람은 사악한 존재와의 거래로 이어졌고, 결국 가족 전체의 운명이 바뀌고 만 것이다.

2차 대전이 터지자, 그레타와 가족들은 집안의 막내이자 유일한 딸인 에이다가 무사히 달아나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희생했다. 뱃속에 아기를 품은 채 홀로 폴란드를 빠져 나온 에이다는 딸 사라를 낳는다. 관능미를 갖춘 재즈 가수로 유명세를 떨치던 사라는 혼전 임신을 하게 되고, 딸 루시아를 낳는다. ‘루루’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된 예쁜 아기가 시카고의 좁아터진 아파트에서 철없는 엄마와 힘겹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던 에이다는 손녀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맨처음 발견하고, 국제적인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루살카’ 신화를 소재로 특별한 능력이 저주가 된 어느 집안 여자들의 비밀과 희생을 그린 소설

한창 재즈 가수로 활동하다 집을 나가버린 엄마 대신 할머니 손에 크면서, 루루는 그레타 할머니부터 대물림 되는 저주에 대해, 환상적인 동화 속 이야기와도 같은 단 한 번의 무시무시한 거래에 대해 몇 번이나 들었다. 자신의 딸 카라를 보면서 루루의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정말 저주의 내용처럼 나는 노래를 더 이상 못하게 될까? “내 목소리를 딸에게 주어야 한다면, 돌려 받을 수도 있을까?”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전부인 소프라노로,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로 살아온 루루는 혼란스러워한다.

드보르작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오페라 <루살카>가 탄생한 배경이 된 슬라브 신화 속 요정 루살카는 요정, 정령으로도 불리지만 ‘물귀신’이라는 섬뜩한 이름으로도 불린다. 아름다운 미모와 노래 솜씨로 지나가는 사람을 홀려서 결국 물에 빠지게 만든다는 루살카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루루 집안의 4대에 걸친 저주는 루루가 두려움에 떨며 떠올리는 이야기와 기억들을 통해 폴란드 포즈나니부터 미국 시카고, 파리, 울란바토르까지 지역을 넘나들며 환상적으로 펼쳐진다. 현재 루루가 살고 있는 시카고와 먼 옛날 폴란드라는 낯선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면서도 이질적인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서로 다른 시대, 지역에서 엄마와 딸에게 닥친 비극적인 관계와 음악을 향한 뜨거운 열정, 각자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과 숨겨진 사랑, 상상할 수도 없는 희생을 극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에이드리언 켈트(Adrienne Celt)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예술석사를 취득하고 「Esquire」, 「Kenyon Review」, 「Rumpus」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데뷔 소설인 위 작품으로 2015년 ‘PEN 남서부 지역 도서상(PEN Southwest Book Awards)’을 수상했다.

제목 : WHAT BELONGS TO YOU

가제 : 당신이 가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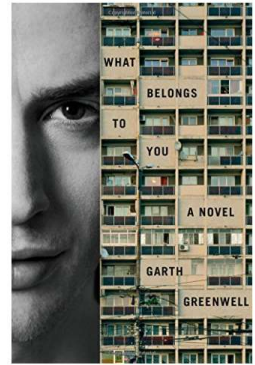
저자 : Garth Greenwell

출판사: Farrar, Straus and Giroux

발행일: 2016년 1월 19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쿼어문학



이 소설은 상투적인 모티브들을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차용하고 있다. —제임스 우드, ‘The New Yorker’

우아하다. 그린웰은 감각적이면서도 종종 가감없는 엄격함으로 수치와 욕망의 결합을 묘사한다. —샘 색스, ‘The Wall Street Journal’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사람, 파괴적인 사랑과 끝을 모르는 욕망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남자

불가리아의 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남자가 있다. 계절에 맞지 않게 유난히 따스했던 10월의 어느 날, 남자는 소피아의 국립 문화공전의 공중화장실로 들어간다. 그곳이 동성간의 매매춘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장소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남자는 용변을 보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은 없었다. 하지만 진한 카리스마로 남자를 한 눈에 사로잡은 젊은 청년, 미트코에게 남자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에게 돈을 건네고 섹스를 요구한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남자는 묘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 공중화장실을 한 번, 또 한 번, 그렇게 계속 찾아가 미트코를 만났다. 정체 모를 허기와 외로움, 위험한 일을 저지르고 싶은 강렬한 충동으로 남자는 그로부터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미트코와 관계를 가졌다. 남자가 사는 아파트에 미트코가 찾아와 편하게 인터넷도 사용하고 꾸준히 용돈을 벌어가는 사이로 발전한 뒤, 흑해 연안에 있는 미트코의 고향 바르나까지 함께 여행도 떠난다. 성적인 욕망을 달래고 돈벌이를 하는 것, 명확한 목적으로 시작된 둘의 만남은 단순한 관계를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미트코가 점점 내비치는 폭력적인 모습은 남자가 기억 저편에 끄꽂 물어두었던 과거를 하나씩 고집어낸다. 문득 정신차렸을 때, 남자는 두 사람의 들끓는 욕망이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위험한 관계로 변질되었고 처음에 느낀 미트코의 다정함과 온기가 위태로운 폭력으로 바뀌어버렸음을 깨닫는다. 그로 인해 발생한 고통과 괴로움은 오롯이 자신이 떠안아야 할 몫이었다.

낯설,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기억, 공포, 슬픔을 모두 고집어내는 위태로운 욕망이 만든 결과

동성애자는 괴물 취급을 받고 배척당해야만 했던 남자의 어린 시절, 자신의 성 정체성을 처음

인식하게 해준 첫사랑 K와의 만남, 남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절대 잊을 수 없는 반응들이 남자의 기억 속에서 하나 둘 깨어나고, 그는 불가리아라는 낯선 땅에서 맞이한 처참한 상황과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 사이에서 묘하게 닮은 부분을 발견한다.

결국 남자와 미트코의 위태로운 관계는 깨어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은 채 몇 년의 세월이 흐른다. 그러나 살던 집도 잃고 삶의 모든 것이 피폐해진 미트코가 첫 만남처럼 불쑥 남자의 삶에 찾아오면서 둘의 관계는 다시 시작된다. 내면에서 솟구치는 성적인 욕망과 함께 있어도 더 이상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미트코의 존재에서 느끼는 상반된 감정, 미트코가 자신에게 내비치는 친절함과 온화함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상대를 유혹하려는 몸짓일 뿐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남자의 마음속을 휘젓는다.

끝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남자가 미트코와 만나는 장면장면이 모두 개별적인 단편처럼, 앞선 이야기와 간격을 두면서 인물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몸짓과 냄새, 촉감이 한층 더 생생하게 전달되고 무엇이 남자로 하여금 중독에 가까운 매혹에 빠지게 만드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따라가도록 유도한다. 불가리아라는 다소 생경한 장소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남자와 미트코의 복잡한 감정과 욕망에 대한 심리학적인 탐구가 작가의 시적인 표현과 유려한 문장들로 가득 채워진 소설이다.

<저자 소개>

가스 그린웰(Garth Greenwell)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Iowa Writers' Workshop) 과정을 수료했다. 소설 『Mitko』로 2010년 '마이애미 대학교 출판사 중편소설 상'을 수상하고 '에드문드 화이트 데뷔 소설 상' 결선 후보에 올랐다.

제목 : THE VANISHING FUTURIST

가제 : 사라진 미래학자

저자 : Charlotte Hobson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6년 5월 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문학



낮선 땅 러시아로 떠난 젊은 여성과 그녀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놓은 괴짜 발명가

영국 콘월에서 딱히 하는 일 없는 노처녀로 살던 거트루드 프릴리는 1914년, 가정교사로 일하기 위해 러시아로 떠난다. 대학을 졸업한지도 벌써 4년이나 지났지만, 거트루드는 가끔 임시직 교사로 일하거나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결혼해달라고 애원하는 남자도 없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을 무렵, 거트루드는 또래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직업인 해외 가정교사를 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문제는 그녀가 원하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것.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떠났고 오스트리아에서 일과 함께 여가 활동도 즐기며 신나게 산다는 소식들이 자주 들려왔지만, 책벌레인 거트루드는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러시아를 꿈꾸기 시작했다. 모험이라곤 흥미도 관심도 전혀 없는 아버지는 딸의 무모한 결정에 당연히 반대했다. 만류하는 부모와의 지루한 싸움과 모든 생활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칠 거라는 친척들의 경고성 회유도 모두 이겨낸 거트루드는 마침내 러시아로 향한다. 대부호 코블레프 가의 어린 두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된 거트루드는 하인만 족히 4-50명은 되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씩 머무르는 친지들로 항상 북적거리는 거대한 저택에 첫 발을 들였다.

스물두 살 어린 나이에 러시아로 왔을 때만 해도 불과 몇 년 뒤에 나라 전체가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릴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917년, 모스크바에 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자 중산층 계급들은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달아났다. 그들의 밑에서 일하던 하인들, 가정교사들도 함께 떠나거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거트루드는 남다른 선택을 했다. 러시아에 그대로 남기로 결심한 것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 발명가이자 물리학자인 니키타 슬라브킨을 만났기에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다. 거트루드가 가족들이 다 모이는 저녁 식사에서도 큰 문제없이 대화를 나눌 만큼 러시아어에 익숙해진 1914년 12월의 어느 날, 모스크바 대학교에 다니던 코블레프 가의 큰 아들 파샤가 친구인 니키타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을 거듭 제시하며 집안 사람 모두의 호감을 얻었고, 자연스럽게 거트루드와 가까워졌다. 거트루드는 니키타와의 관계가 깊어갈수록,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실천에 옮기며 살아보고 싶다는 그의 믿음까지 온 마음으로 응원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의 영웅이자 아이콘이 된 남자, 그가 만들려던 미래의 진실을 찾아야만 하는 여자

1918년 8월, 1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빈부 격차와 굶주림에 진절머리가 난 민중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후,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모스크바에서 거트루드는 니키타가 주도하는 ‘유토피아 실험’에 기꺼이 참여한다. 뜻을 함께하는 젊은이들이 한 곳에 모여 진정한 공산주의자 생활을 실천에 옮기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구성원들은 물건의 사적 소유를 금지했고, 심지어 속옷까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모두의 앞에서 독신주의를 선언했다. 온통 새하얗게 칠한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시작한 니키타의 무리들은 늘 가난해서 굶고 배고팠지만 새로운 삶,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기쁨과 희열로 기분만은 늘 들뜬 상태였다. 해묵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현대 사회를 만드는 일, 부르주아의 거대한 권력에서 벗어나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거트루드를 비롯한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흡사 공장에서 새로 나온 최신식 기계처럼 창의적이고 세련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갔다.

그러나 이들이 발산하는 에너지와 달리, 바깥 세상의 혼란과 폭력은 그칠 줄을 몰랐다. 1919년 1월의 어느 밤, 니키타는 ‘사회화 캡슐’로 명명된 발명품을 남긴 채 어딘가로 홀연히 사라져버린다. 인생의 영웅으로 여기던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토대로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수많은 지식을 전파하며 최고의 지식인으로 인정 받던 니키타가 그 기이한 발명품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추자, 소비에트는 그를 ‘사라진 미래학자’로 부르며 연방의 상징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니키타의 업적을 기린 기념비가 곳곳에 세워지고 거리 명칭에도 그의 이름이 들어가고 자서전, 초상화, 심지어 그의 일생을 그린 영화까지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니키타가 자신이 만든 캡슐 속에 들어가 사라져버렸으며, 언젠가 다시 나타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기묘한 곳을 잃어버린 거트루드는, 미래란 진짜 무엇인지, 그 미래라는 시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혼자서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그토록 굳게 믿었던 이상적인 가치가 결국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는지 직접 찾아내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볼 시간이 되었다.

현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힘들다고 포기하는 대신 모호할지언정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 떠나게 만드는 작은 희망, 거역할 수 없는 ‘가능성’이라는 목표가 주는 에너지를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로 풀어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샬럿 홉슨(Charlotte Hobson)은 광고회사와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작가이자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후 러시아에서 1년간 머무르던 시절을 추억하며 쓴 회고록 『Black Earth City』로 ‘서머셋 몸 상(Somerset Maugham Award)’을 수상하고 ‘더프 쿠퍼 상(Duff Cooper Prize)’, ‘토머스 쿡 여행도서 상(Thomas Cook Travel Book Award)’ 결선 후보에 올랐다.

NON-FICTION

제목 : FIND YOUR BALANCE POINT

가제 : 나만의 균형점을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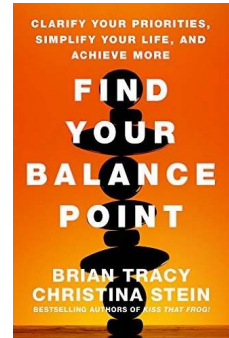
저자 : Brian Tracy, Christina Stein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5년 9월 1일

분량 : 12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이 따뜻하면서도 통찰력있는 책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로라 스텍, The Productivity Pro®, ‘What to Do When There's Too Much to Do’의 저자

할 일은 태산인데 시간은 부족하다면? 정말 중요한 일, 필요한 일을 가려내고 균형점을 찾아라

요즘 사람들은 할 일은 태산인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너도나도 토로한다. 주어진 역할, 해야 하는 일, 맡은 책임이 너무 막중해서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일 수록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덜 중요한 것에 들이는 시간은 줄이는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비전, 삶의 목적, 목표가 모두 다르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방식도 다양하다. 개개인마다 다른 이 ‘균형점’을 찾고 그 기준에 따라 모든 일을 해결할 때, 누구나 삶의 진정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두 저자는 이 책에서 개인의 삶과 직업적인 면 모두에서 각자의 목표와 야망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하고,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균형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불균형을 체감하지만 이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자신에게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일,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 끝까지 해낼 수 있게 되면 균형점은 저절로 찾게 된다고 두 저자는 이야기한다.

진정한 균형점은 내적 경험을 통해 발견되며, 자신이 내린 선택에 자신이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신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감지할 줄 알아야 한다.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을 찾아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균형점은 개개인마다 달라서 다른 사람이 다른 선택을 내리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정신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균형점을 잃고 너무나 성급한 선택을 내린다는 것이다. 균형점과 거리가

말지만 언뜻 보기에 균형을 찾게 해줄 것 같은 일들을 무심코 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제대로 된 균형을 찾아 헤매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넘쳐나는 전문가들, 인생 코치들, 심리학자들은 균형을 잃고 혼란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균형을 찾게 해주겠다고 단언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보는 사람은 드물다. 사람마다 불균형한 삶을 사는 원인이 제각기 다른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반짝 효과만 나타나는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두 저자는 이 모든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과 더불어 균형점에 맞는 방식을 실천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소개한다. 살다가 균형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고 다시 균형을 회복하려면 어떤 부분을 고쳐나가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들도 제시된다.

각자가 중시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찾아서 명확히 정리하고, 쫓기듯 사는 삶 대신 체계적으로 정리된 단순한 삶을 살면서 인생의 목표, 희망, 꿈을 이루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할 일은 태산인데 시간이 부족해요

1. 나만의 가치를 찾고, 올바른 출발점에서 시작하라
2. 정체시키는 원인을 찾아라
3. 비전을 그리고 분명하게 정의하면 에너지가 생긴다
4. 목적이 있을 때 헌신하라
5. 목표를 정하고 전부 달성하라
6.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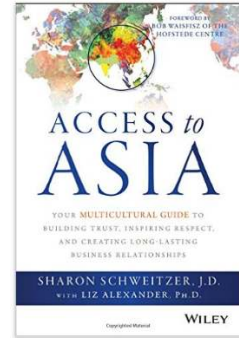
결론: 삶에 에너지를 불어 넣는 네 가지 방법

<저자 소개>

브라이언 트레이시(Brian Tracy)는 ‘브라이언 인터네셔널(Brian Tracy International)’의 CEO로 매년 25만 명 이상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50권이 넘는 저서를 발표했고 그 중 일부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크리스티나 스타인(Christina Stein)은 심리치료사이자 강연가, 저술가로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 여성 권익 강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개인과 부부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단체 워크숍도 실시해 왔다.

제목 : ACCESS TO ASIA
가제 : 아시아로 가는 길
저자 : Sharon Schweitzer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5년 4월 27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문화, 경영



미국 주요 사업 파트너인 아시아 10개국, 사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문화적 특성

전 세계 각 지역과 나라마다 문화적인 차이는 극명하다.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이 특징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자란 저자는 대학 졸업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마음가짐과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답을 찾고자 7개 대륙, 30개국 이상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 듣고, 찾아낸 결과를 토대로 서구 지역 사람들이 아시아라는 낯선 환경에서 사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을 이 책에서 상세히 제시한다. 세계화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서구 지역과 문화가 확연히 다른 아시아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값진 조언, 지침, 정보들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저자는 글로벌 정보분석 업체에 의뢰하여 미국인들이 투자와 사업적인 목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나라를 조사한 결과 최상위 6개국으로 파악된 중국, 홍콩, 일본, 인도, 한국, 태국을 이 책에서 집중 분석한다. 이 여섯 개 나라는 미국인들의 아시아 출장 국가 중 7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미국의 주된 사업 파트너 국가이자 주요 투자 대상국가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저자는 향후 20년 간 미국의 사업상 방문 횟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국가로 파악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조사 대상 국가에 추가하고 저자가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두는 미얀마까지 포함시켜 총 10개국을 분석했다. 저자는 이 국가들에 대하여 100명이 넘는 각국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실시한 후, 사업 성공과 직결된 여덟 가지 공통적인 주안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하는 한편 각 아시아 국가와 사업 파트너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접근법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관계 형성의 핵심은 바로 문화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 책에서는 먼저 미국의 문화를 동일한 체계에 따라 설명하여 뒤에 이어지는 아시아 각국의 특징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가별로 분리된 책의 각 장에서는 먼저 해당 국가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한 후 그 나라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역사 속 영웅과 스포츠 영웅을 소개하고 기본적인 에티켓, 친근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팁, 주요 정부기관의 운영 시간과 회계 일정, 공휴일 정보를 제시

한다. 특히 ‘자체 평가 질문’을 따로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독자가 현재 해당 국가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여덟 가지 질문을 던진다. 각 질문은 1부터 6까지 척도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하여 미묘한 차이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령 일본은 문화적으로 격식을 매우 중시하는 편이고 사업차 방문할 때는 반드시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중국에서는 의사결정을 개인이 내리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 필리핀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루에도 샤워를 여러 번 하는 만큼 개인 위생에 크게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할 줄 아는 효과적인 문화 소통의 기술이 글로벌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된 시대, 개인적으로든 사업체 단위로든 아시아의 사업 파트너와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 열정으로 시작된 여정 / 에티켓부터 문화간 교류까지 / 질문으로 이해하기 / 분석 국가 선별 방식 / 이 책의 구성 (이하 생략)

1장. 문화에 대한 질문

2장. 각국 문화의 탐색

3장. 미국

4장. 개념과 용어 정리

5장. 중국 - 소개 / 퀴즈 / 기본 정보 / 사업 문화, 에티켓, 관습 / 여덟 가지 질문 / 문화 요약 / 자체평가 질문

6장. 홍콩 - 소개 / 퀴즈 / 기본 정보 / 사업 문화, 에티켓, 관습 / 여덟 가지 질문 / 문화 요약 / 자체평가 질문

7장. 인도 - 소개 / 퀴즈 / 기본 정보 / 사업 문화, 에티켓, 관습 / 여덟 가지 질문 / 문화 요약 / 자체평가 질문

8장. 일본 - 소개 / 퀴즈 / 기본 정보 / 사업 문화, 에티켓, 관습 / 여덟 가지 질문 / 문화 요약 / 자체평가 질문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샤론 슈바이처(Sharon Schweitzer)는 ‘프로토콜 앤 에티켓 월드와이드(Protocol & Etiquette Worldwide)’를 창립한 국제 예절 전문상담가로, 1만 5천 명 이상의 변호사, 기업 간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자문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제목 : CALMER, EASIER, HAPPIER SCREEN TIME

가제 : 디지털 세상, 평온하게 수월하게 행복하게 아이 키우는 법

저자 : Noel Janis-Norton

출판사: Yellow Kite

발행일: 2016년 2월 25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육아



스마트 폰, 태블릿,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아이들을 새로운 생활 규칙으로 유도하는 양육법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부터 십대 청소년까지,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어디나, 틈만 나면 화면만 들여다보는 아이들 때문에 잔소리가 그칠 날이 없다. TV, 태블릿, 플레이스테이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폭 빠져서 몇 시간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는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버릇을 바로 잡으려다가 큰 갈등을 겪거나 결국 아이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울화통을 터뜨리는 부모들이 수없이 많다. 40년 넘게 학습 및 행동 전문가로 활동해온 저자 역시 최근 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이들이 화면만 쳐다보는 시간을 어떻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하나요?’라고 전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태도가 공격적으로 변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책에서는 충분히 검증된 양육 전략을 디지털 시대의 이 심각한 문제에 적용하여, 현대 자녀 교육에서 어쩌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디지털 기기 이용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와 같은 디지털 ‘중독’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아이들의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과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도 함께 설명한다.

실제로 아이들이 컴퓨터나 휴대 기기 화면만 들여다보는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중독’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저자는 각종 기기의 화면에 묶여버린 현대 사회 아이들의 상태는 비유가 아닌 중독의 본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약물이나 특정 행동에 중독된 사람이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 비정상적으로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 공부나 숙제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자연스레 학습해야 하는 집안일 돕기나 식구들과의 단란한 시간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형성하는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때와 장소에 알맞게 목소리 톤을 조절하거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모르거나 등교하는 날 아침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식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기능마저 상실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저자는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른 디지털 중독 상황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스스로 자신의 기기 이용 시간을 통제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루라는 한정된 시간을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분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무엇보다 부모가 아이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일

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현재 자신의 자녀가 전자기기에 중독된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방법부터 제시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규칙과 규율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길을 제시한다. 그 다음 단계는 꼼꼼히 세운 계획을 실천하는 것으로, 자연히 따를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의 반항심과 저항을 완화시켜 협력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한다. 무조건 억박지르는 대신 보다 친근하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새로운 규칙을 아이에게 설명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좋은 방법을 다 써봐도 소용 없다고 느낀 부모들, 스마트 폰 때문에 아이와 벌이는 실랑이에 완전히 지쳐버린 부모들도 한번쯤 다시 시도해볼 수 있는 실용적이고 확실한 디지털 시대 양육 방법을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1부. 부모가 주도권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

1. 주도권 되찾기
2. 디지털 기기를 둘러싼 네 가지 쟁점
3. 우리 집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일까?
4. 디지털 기기의 악영향

(이하 생략)

2부. 전자기기 관리 권한을 되찾는 법

8. 사용시간을 제한하려면
9. 보상 방법으로 활용하라
10. 우리 가족에게 꼭 맞는 보상 계획
11. 아이에게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는 방법
12. Q & A

3부. 새로운 디지털 기기 이용 습관 만들기 전략

13. 구체적인 칭찬
14. 해결 전략을 강화하는 법
15. 성공을 위한 준비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노엘 제니스 노트(Noël Janis-Norton)은 뉴욕 대학교에서 교수법을 공부하고 학교 교사, 특수아

동 교사를 비롯해 40년간 행동, 학습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CALMER, EASIER, HAPPIER』 시리즈를 비롯해 수많은 저서를 발표하고 세미나, 강연,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제목: POWER GAMES

가제: 파워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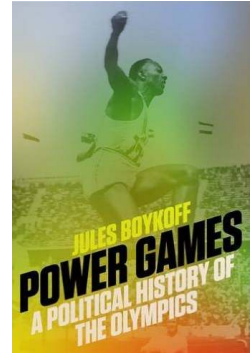
저자: Jules Boykoff

출판사: Verso

발행일: 2016년 5월 17일

분량: 208 페이지

장르: 스포츠, 역사



순수 스포츠나 공명정대한 경쟁과는 다소 거리가 먼 올림픽의 진짜 얼굴과 정치적인 역사

21세기 올림픽의 주된 특징은 무엇일까? 개최 국가의 선정부부터 경기 운영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권한을 가진 자들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특권층이 그 과정을 주도하며, 개최한 도시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한 번 개최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사실들이 떠오를 것이다. 대체 언제부터 순수 스포츠의 표상이던 올림픽이 이처럼 상업화된, 거대한 조직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 올림픽 축구 대표팀에서 활약하다가 학자, 저술가로 살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제시하면서, 올림픽에 정치가 끼어들면서 크게 망가져 버린 역사를 전한다. 현대의 올림픽 경기가 처음 싹을 틔운 19세기부터 올림픽과 정치 사이에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올림픽의 정치적 역사를 알아야 스포츠가 어쩌다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한 수단에서 전문적인 분야로 우뚝 서게 되었는지, 소수가 즐기던 문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문화가 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올림픽의 역사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첫 경기 이후 1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나타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 과정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계급에 따른 특권과 토착민에 대한 억압, 사회운동가들의 전략, 자본주의자들이 거머쥐게 된 힘과 권력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공식적으로는 올림픽이 정치와 무관해야 하고 정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내놓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실체를 살펴보면 올림픽이야말로 ‘정치 그 자체’라고 지적하면서 왜 올림픽 경기가 이런 모순된 특성을 지닌 채 이어져 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본다.

고대 올림픽을 현대에 부활시킨 인물은 프랑스의 교육자이자 귀족이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이다. 19세기 후반, 세계 각국 청년들을 스포츠 경기로 단합시키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IOC를 조직하고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그리하여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올림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진 것이다. 저자는 쿠베르탱 남작부터 이미 올림픽의 핵심적인 특징인 ‘모순’이 뿌리를 내렸다고 이야기한다. 쿠베르탱은 공식적으로는 올림픽에 정치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지만, 뒤에서는 경기 개최와 발전을 위해 정치적 권력을 움직이고 동원할 수 있는 브로커를 적극 활용했다. 쿠베르탱의 전기를 쓴 작가도 올림픽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던 그의 발언을 ‘극히 부정직한 일이었다’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이후에도 IOC는 남아프리카의 출전권을 박탈하거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을 중재하

는가 하면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치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도록 내버려두는 등 세계 정치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행보를 이어갔다. 저자는 화려하고 풍성한 오늘날의 올림픽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역사와 파시즘과의 관계, 지독한 부정부패와 대형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1920년대와 30년대에 일어난 노동자, 여성들을 위한 올림픽 개최 운동과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성애자 올림픽 추진 노력 등 올림픽과 관련된 다채로운 변화의 흐름을 골고루 짚어본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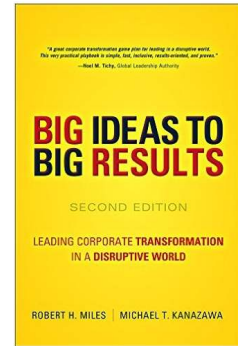
머리말: ‘올림픽 게임’ 작전

1. 쿠베르탱, 그리고 올림픽 대회와 부활
2. 올림픽의 대안
3. 냉전 게임
4. 올림픽의 상업화
5. 자본주의 시대를 기념하며
6. 2016년 리우 올림픽, 이후 나아갈 길

<저자 소개>

줄스 보이코프(Jules Boykoff)는 오리건 주에 위치한 퍼시픽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다 학자의 길로 접어들어 「가디언」, 「뉴욕타임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Activism and the Olympics』, 『Celebration Capitalism and the Olympic Games』,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BIG IDEAS TO BIG RESULTS
가제 : 거대한 생각, 거대한 결과
저자 : Michael Kanazawa, Robert Miles
출판사: Pearson FT Press
발행일: 2016년 1월 2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경영



카나자와 마일즈는 당신에게 성공으로 향하는 로드맵을 제공한다.—피터 L. 린치, ‘Winn-Dixie Stores, Inc.’의 CEO

간단명료하다. 카나자와와 마일즈는 수십년간의 기업 변신의 경험을 몇 마디의 핵심적인 문장으로 정리했다. CEO라면 읽어야 한다.—피터 다비, ‘PG&E’의 CEO

거듭 실패한 혁신에 지쳐버린 기업과 리더들에게 확실한 성과를 안겨 줄 검증된 변화 계획

수많은 기업들이 대대적인 변화를 계획하고도 정작 성과나 실적 면에서 괄목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까? 일을 너무 복잡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업계에서만 통용되는 전문 용어나 일을 모호하게 만들어 혼란을 부추기는 요소들은 내버려 둔 채 케케묵은 프로젝트 위에 새로운 계획을 덧바르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막상 발사대까지 와서 마지막 순간에 주저하고, 괜찮다고 소문나서 유행처럼 번지는 방법들을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라 하고 갈팡질팡하는 태도 역시 그와 같은 결과를 부추긴다. 두 저자는 기업 변화를 책임지는 리더들이 실제로 안정적이고 확고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간단하지만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성과 중심의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한 기업 개선 방안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수십 명의 CEO들과 회사 경영진, 수백 명의 선임 직원들, 직원 관리 전문가들과 함께 고안한 강력한 변화 계획으로, 기업의 핵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구성원 전체의 업무 속도를 높이는 한편 업무가 각 단계별 리더를 중심으로 원활히 진행되는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선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톨을 원활히 포용하고, 경영 전 단계에서 계획을 끝까지 끌고 가는 추진력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회사 전체의 변화를 도맡은 새로운 CEO든, 회사의 주요 사업이나 주된 기능의 방향을 대폭 바꾸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경영진이든, 수백 명이나 되는 관리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수천 명이 넘는 직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기업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과정에 헌신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친절하고 상세한 지도로 활용하여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기업의 변화는 분명 힘들고 복잡한 일이지만, 성공하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실제로 누군가는 그 일을 해내고, 그것도 굉장히 잘 해냈다는 이야

기가 들려 온다. 그 부러운 사례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두 저자는 ‘기업 변화 가속화(ACT)’ 계획으로 명명한 단계별 방식을 그 해답으로 제시한다. 회사 내에서 리더 역할을 맡은 모든 사람이 변화 과정에 한꺼번에 참여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고수한 채 변화를 덧씌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구성원들에게 혁신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계획은 산업계에서 변화의 아이콘으로 인정 받는 기업들이 실제로 적용하여 효과를 거둔 확실한 방법이다. 치열한 경쟁과 거듭되는 혁신 시도로 지쳐버린 기업들의 입장에서 또 다시 신속한 변화를 계획하고 첫 발을 떼고 자신감을 갖는 일이 힘겹게 느껴질 수 있다. 두 저자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한 직후, 초기에 바로 그 성과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이어갈 원동력이 얻을 수 있는 참신하고 전략적인 변화 계획을 소개하고, 그 성과가 초기 단계에 그치지 않고 점차 향상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목차>

- 1장. ‘기업 변화 가속화’ 계획 - 기초
- 2장. 변화의 출발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
- 3장. 변화의 시작 과정을 꼼꼼히 설계하라
- 4장. 집중 단계
- 5장. 발맞추기 단계
- 6장. 참여 단계
- 7장. 실행 단계
- 8장. 속도와 기업 안팎의 환경에 관한 인식 변화
- 9장. 꾸준히 이끌어갈 추진력을 만들어라
- 10장. 대대적인 혁신 계획
- 11장. 리더의 역할

<저자 소개>

마이클 가나자와(Michael Kanazawa)는 전 세계 기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혁신, 전략, 변화 방안을 제시하며 소비자 중심의 혁신, 신제품 개발, 기업 전략 수립을 돕고 있다.

로버트 마일스(Robert Miles)는 기업 변화와 경영진 리더십 교육을 담당하는 업체 ‘Corporate Transformation Resources’의 대표로, ‘기업 변화 가속화 계획(ACT)’을 개발하여 20년 간애플, 제너럴 일렉트릭, IBM 글로벌 서비스, 시멘텍 등 일류 기업들의 변화를 도왔다. 저서로는 『Macro Organizational Behavior』, 『The Organization Life Cycle』, 『Coffin Nails and Corporate Strategies』, 『Managing the Corporate Social Environment』 등이 있다.

제목 : A WORLD OF GARDENS

가제 : 정원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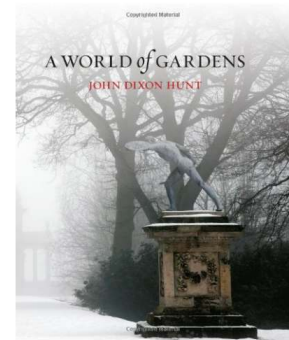
저자 : John Dixon Hunt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2년 4월 1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역사



모습도 구성도 분위기도 각양각색인 전 세계의 정원, 그 역사에 담긴 지역, 문화, 인간의 특성

일본의 정원은 영국 대저택 앞에 펼쳐진 전통적인 정원과는 한 눈에 봐도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베르사이유의 깔끔하게 다듬어진 토피어리와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뾰족뾰족한 선인장도 보는 이들에게 너무나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일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랑 받는 활동이지만 지역마다, 기후마다, 그리고 문화적 특징에 따라 정원의 스타일과 특성은 제각각이다. 저자는 아름다운 정원들의 사진이 풍성하게 담긴 이 책에서 독자들의 가이드가 되어, 세계 각지를 돌며 시대에 따라 어떤 정원들이 탄생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정원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처음 탄생한 시기, 가장 초창기에 등장한 정원의 형태적 특징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목적과 배경으로 숏한 변화를 겪은 정원들을 살펴보면서 그 변화의 과정에 담겨 있는 문화적인 요소와 특정 지역의 지리학적 특성을 찾아본다.

사람들은 정원을 방문하거나 떠올리면 일단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과 정원에 사용된 재료, 그림, 조각품에 주목한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는 그 구성 요소의 의미를 궁금해하고, 설계 과정이나 용도, 파괴되거나 폐허가 되었다가 복구된 연유, 혹은 방치된 채 남겨진 이유에 관심을 갖는다. 또 정원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이고 누구의 의뢰와 후원을 받아 완성했는지, 정원이 만들어진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개인적인 추억이나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기억을 어떤 정원을 보면서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정원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식물, 조각상에 대부분의 관심을 쏟지만, 정원의 역사는 곧 그 지역, 넓게는 국가 전체 문화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정원을 바라보면서 설계 양식을 따지거나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그 정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필 그곳에 무슨 이유로 정원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재까지 남아 있다면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보존되었는지, 사라졌다면 왜 사라졌는지 알아야 다양한 문화권마다 공간의 형식과 용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정원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활동 특성과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시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오랜 역사를 지닌 정원을 통해 우리는 인류 역사의 생생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로마 시대의 정원부터 이슬람 지역, 무굴 제국에 만들어진 정원을 비롯해 베네치아, 중국, 일본의 정원,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현대 조경 기술 속에서 자연 환경에 따라 자꾸만 변화하는 땅을 바라보며, 땅을 다루는 법을 익히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인류의 발자취, 자연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재편하려는 욕구와 함께 이와 같은 중요한 흔적을 찾아본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무궁무진한 특징을 나타내는 정원을 시대 순서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인류 역사를 색다른 렌즈로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만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전 세계의 정원, 그리고 정원의 세계

1. 델피에서 요세미티까지, 신성한 풍경
 2. 사냥터부터 놀이동산까지
 3. 고대 로마의 정원과 유형
 4. 이슬람과 무굴 제국의 정원
 5. 중세 시대 서구 지역의 정원들: 회랑과 교외 지역의 뒤뜰
 6. 르네상스 시대, 고대 정원의 형식과 용도의 재발견
 7. ‘파라고네’, 르네상스 시대의 자연, 그 이후의 변화
 8. 식물원, 수목원, 그리고 ‘호기심의 방’
 9. 정원을 극장처럼
 10. 정원을 중개자처럼: 앙드레 르노트르와 윌리엄 켄트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존 딕슨 헌트(John Dixon Hunt)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역사와 조경 이론을 가르치는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학술지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The Afterlife of Gardens』, 『Nature Over Again: The Garden Art of Ian Hamilton Finlay』, 『Art, Word and Image』 등이 있다.